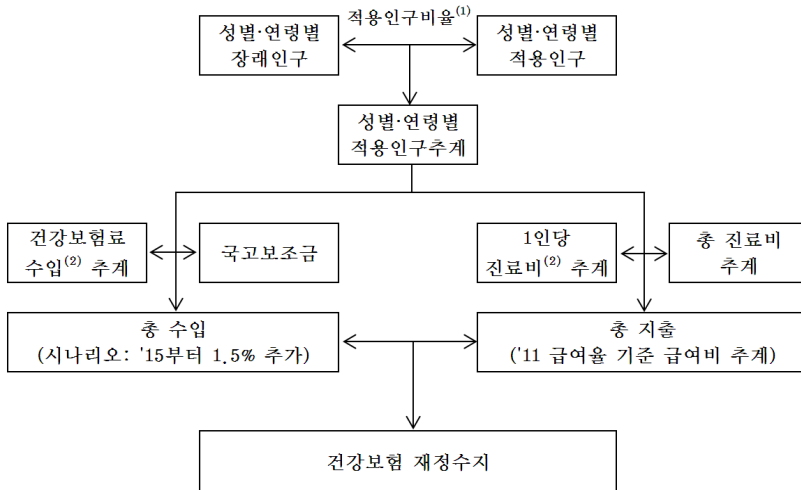


부 록 Ⅱ. 국민건강보험 재정추계

1. 재정추계 모형

- 국민건강보험 재정추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산출한 후 박형수·송호신(2011)의 방법에 따라 추계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였음.

〈부록 그림 Ⅱ-1〉 국민건강보험 재정추계 요약도



주: 1) 2010년 기준.

2) 2011년 기준.

2. 추계 방법

가.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추계

-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0년도 총인구 대비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추계함.
 - 2011년도에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(2010~2060년)를 활용하여 성별·0세 및 5세 단위로 구분함.
 - 2010년 성별·연령별 적용인구를 활용하여 적용인구/총인구 비율을 적용하여 적용인구를 추계함.

나. 총수입 추계

- (총수입) 현행 건강보험료율⁵⁰⁾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가장 최근 실적치인 2011년도 총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추계함.
 - 2011년 총보험료 수입에 적용인구의 변화와 1인당 소득 변화를 감안하기 위하여 앞서 추계한 적용인구 증가율과 1인당 추계소득증가율⁵¹⁾을 곱하여 추계함.
 - 총수입 중 보험료 수입 이외의 국고지원금 해당액은 법정지원 비율이 현행과 같이 20%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산출함.
- (시나리오) 2010년 적용인구비율과 2011년 건강보험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2015년부터 1.5%p씩 추가적으로 증가함.

50) 2011년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5.64%임.

51) 1인당 추계소득증가율은 박형수·송호신(2011)과 KDI 용역보고서에서 전망한 명목 GDP 추계치를 2012년도 수준으로 조정하였음.

다. 총지출 추계

- (가정) 건강보험 지출을 추계하기 위하여 수명, 건강보험지출의 소득탄력성, 의료서비스 단가에 대하여 가정하였음.
 - 수명의 경우 2011년에 발표된 통계청의 인구추계결과를 반영하였음.
 - 건강보험지출 소득탄력성의 경우 1이 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, 2013년 1.1에서 2060년 1.0으로 순차적으로 하향하는 계수를 반영함.
 - －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의료 서비스의 발달로 의료 관련 소비 증가가 다른 소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임.
 - 의료서비스 단가의 경우 1인당 소득(1인당 GDP) 증가율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.
 - 이는 박형수·송호신(2011)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8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함.

- (총진료비) 1인당 진료비 추계결과에 적용인구 추계결과를 곱하여 총진료비를 산출함.
 - 2011년도 성별·연령별 1인당 진료비에 의료서비스의 단가 증가와 소득에 대한 의료지출 탄력성을 감안하여 추계함.
 - 여기서 총진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를 의미함.

- (총급여비) 현행 급여율⁵²⁾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총 진료비 추계결과에 급여율을 곱하여 총급여비를 추계함.

52) 2011년도 기준 급여율은 74.8%임. 여기서 급여율이란 비급여를 제외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담비율을 말함.